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발전적 협력 방안

한익섭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장

I. 우리 교육의 과제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 중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이면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교육비로 대표되는 교육 문제와 투기와 부의 집중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문제일 것이다. 교육 문제는 국내에서는 비난과 불신의 대상이 된 지 오래되었지만,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높은 교육열을 배우자며 미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비판받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성공 모델로 간주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학 진학률로 대표되는 높은 교육열과 사교육비로 인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2008년 기준으로 83.8%에 달하고 있다.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대학 진학률이 50% 안팎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국내 대학 진학률은 1970년 26.9%, 1990년 33.2%, 2000년 68.8%, 2005년 82.1% 등으로 급격히 높아졌다. 앞으

로도 이런 경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높은 대학진학률로 대표되는 높은 교육열은 한편으로는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기능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사교육비 문제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대표되는 교육 문제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2009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연간 사교육비 지출액이 20조 9천억 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23만 4천원에 달한다. 저소득층은 물론이요, 중산층마저도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교육비의 문제의 주 당사자로 지목되는 학원에 대해서 학파라치로 불리는 영업시간 위반, 수강료 과다 징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교육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교육의 심각성은 학부모의 과중한 경제적인 부담이라는 문제 외에 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학생들은 과중한 학습부담 때문에 신체적, 정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입시 위주의 암기식 학습은 학생



의 창의력과 유연한 사고력 발달을 저해하게 되어, 국가적으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인재육성이라는 교육 목표의 달성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사교육비 증가는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교육의 또 다른 중요한 가치를 가로막게 된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사교육의 기회를 갖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교육 격차는 더 벌어지고, 사회적 위화감이 심해지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높은 교육열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그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교육적 역량을 결집하는 일이 우리 교육의 당면 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협력적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II.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관계

높은 교육열이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중고생 학습시간 세계 최고, 고등학교 졸업생 80% 이상의 대학 진학 등의 통계 수치는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을 대변해 준다. 하지만, 높은 상급학교 진학률이 곧 높은 교육적 성과로 이어지는 않는다. 높은 대학 진학률은 학력 인플레이션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높은 교육열을 양질의 교육적 성과로 승화시킬 책임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다.

고등학교는 교양교육을 기본으로 하여,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데 그 설립 목적이 있으며, 대학교는 고등학교 교육에 기초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데 그 설립 목적이 있다. 과연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이 같은 성격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재검

토가 필요하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고등학교는 교양교육을 충실하게 실시하여 대학교에 진학시키고 있는가, 대학교는 교양교육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여 입학시키고 있으며, 전문교육을 알차게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이는 크게 보면,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적 성과에 대한 문제와 대학의 신입생 선발 기능에 관한 문제이다. 교육적 성과에 관한 문제는 논외로 하고, 우선 대학입시와 관련한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호혜적 협력 관계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III.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협력 관계 구축 방안

교육의 본질은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게 하여 개인의 자아실현을 돕고, 사회 및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데 있다.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역할과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본질적인 속성은 다르지 않다. 한편, 중등교육은 완성교육이 아니라 과정교육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완성교육 단계에 진입하는 입시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학입시에 따라, 중등학교의 교육 내용은 물론 방법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중등교육은 대학입시를 위한 도구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고유의 기능에 충실하게 교육내용이 구성되고, 교육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대학 역시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학의 학생 선발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대학의 교육 이념 및 특성에

따라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선발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 대학은 그 위상에 맞게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호혜적 협력 관계는 이들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데서 찾아야 한다. 대학의 학생 선발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선발 방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안되어야 한다. 즉,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이 입학하는데 유리하게 신입생 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재한다고 인식되고 있는 학교 간 학력 격차로 인한 고교 내신 성적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잠재적인 능력을 염두에 둔다면,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의 지역균형 선발이나 기회균형 선발 제도는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은 반면,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입학사정관제가 기존의 계량화된 점수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 능력에 주안점을 두어 학생을 선발한다는 점 때문에 진일보한 선발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객관성, 공정성,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입학사정관제 도입은 사교육비 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이 바로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지는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증명해 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제도를 도입하여 단순 지식이 아닌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평가함으로써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하였던 경험은 입학사정관제의 앞날을 전망하는 데 시사하는 바

가 크다.

입학사정관제는 도입 취지에 맞게 결과보다는 과정, 현재의 성과보다는 미래의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운영될 때, 도입 취지에 맞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포트폴리오로 대표되는 이른바 스펙 중심으로 운영될 때, 이른바 만들어진 성과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성장 과정 및 환경을 고려하여 개인의 노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전제로 한 평가가 이루어질 때, 입학사정관제는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우리 교육 문제의 근저에는 학부모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학력 인플레이션과 같은 과열된 교육열로 나타나고 있으며, 입시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사교육 의존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교육계 내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열된 교육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입시와 관련한 불안감은 교육계의 노력으로 완화할 수 있다.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학교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등교육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대학도 입시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는 입시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불안감은 잘 모르는 데서 생긴다. 선발 방법이나 준비과정을 잘 몰라서 생길 수 있는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입시제도의 변경은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필 / 자 / 소 / 개

한익섭

공주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행정)을 수료하였다. 화곡여중 교사로 시작하여 서울시내 중고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성북교육청 중등교육과,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북부교육청 중등교육과, 서울시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장학사, 중화고등학교 교감, 성북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수송중학교 교장, 을지중학교 교장, 북부교육청 학무국장을 거쳐 현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호혜적 협력 관계는 이들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데서 찾아야 한다. 대학의 학생 선발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선발 방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안되어야 한다. 즉,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이 입학하는데 유리하게 신입생 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

